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디자인교육원

강사 팍혜선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학과

조교수 금기숙

目 次	
I. 서론	1. 흑색의상의 사적 고찰
II. 흑색의 일반적 고찰 및 활용 사례	2. 흑색의상의 조형성
1. 흑색의 특성	3. 흑색의상의 상징성
2. 회화에 나타난 흑색	IV. 결 론
3. 디자인에 나타난 흑색	참고문헌
III. 패션에 나타난 흑색	ABSTRACT

I. 서론

인간의 오감중에는 시각이 가장 민감하며 이 시각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바로 색채이다.¹⁾ 미국의 색채 심리학자 루이스 체스킨(Louis Cheskin)에 의하면 인간은 디자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이성적, 정신적으로 반응하지만, 색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 행위의 10%가 이성(理性)에 의해 유발되고 나머지 90%가 감정에 의해 유발되므로, 형태나 디자인보다도 색채에 대한 반응이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은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며 또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감정상태, 성격, 개성, 자아개념을 표현하므로 의복의 색채는 그 시대의 사회생활상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의복에 사용된 다양한 색채 중에서 산

업혁명 이후 모든 디자인 분야에 기본적인 색상으로 정착하였으며, 현대패션에 가장 지속적인 사용을 보이고 있는 흑색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색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색채의 감정적 효과, 기호, 연상, 이미지, 상징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앞의 4가지는 개인, 지역, 시대에 따른 가변성을 갖고 있으나 이를 초월하여 사회적, 지역적, 보편성은 가질 때 그 색의 상징적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회화 디자인에 사용된 흑색의 조형성과 비교하여 흑색의상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그 시대상의 가장 보편적 성격을 가진 흑색의상의 상징성을 고찰함으로써 의상에서의 흑색 사용에 대한 근원적 접근과 앞으로 흑색의상의 이미지 창출 및 디자인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색채학과 디자인 분야의 색에 대한 문헌을 통해 흑색의 특성을 알아보고 회화에 나타

1)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서울 : 웅진출판사, 1995), p.10.

2)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 조형사, 1994), p.134.

난 흑색의 연구는 흑색이 단순한 명암효과 이외에 색으로서 독립적 특성을 갖게 되는 근대 이후의 회화와 흑색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흑색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알아본다. 또한 디자인 분야의 흑색은 흑색사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산업혁명 이후의 제품 디자인을 중심으로 흑색 디자인의 출현배경과 실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흑색의 조형성 및 상징성을 고찰한다.

패션에 나타난 흑색에 대해서는 먼저 문헌에 의한 흑색의상의 사적고찰을 통하여 그 시대별 특징을 알아본다. 여기에서 흑색의상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성을 흑색의 색채학적 특징과 회화, 디자인 분야의 조형성과 비교 또는 적용하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흑색의상의 사적고찰을 통해 나타난 흑색의 상징성을 분석하여 전통적 상징성 및 회화, 디자인의 상징성과 비교함으로써 가장 근접된 근원과 흐름을 파악한다.

II. 흑색의 일반적 고찰 및 활용 사례

1. 흑색의 특성

흑색은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중 색상과 채도는 없고 명도만 가지고 있는 무채색이다. 무채색의 명도단계를 명도 0에서 명도 10까지 나눌 수 있으나 현실적인 반사율이 0이라든가 100과 같은 것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흑색은 명도 N. 0.5, 백색은 명도 N. 9.5에서부터 표기된다. 색의 근사치에 의해 표기된 일반 색명은 ISCC-NBS 색명법³⁾에 준하며 한국 공업규격(KS)의 색명법도 미국의 ISCC-NBS색명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⁴⁾

이에 의하면 흑색은 명도 N. 2.5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 색채연구소에서는 명도 N. 2.0까지를 흑색의 범주에 넣고 있다.⁵⁾

일반적으로 색채의 특성은 색채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흑색의 색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흑색은 유채색과의 대비에서 색상대비가 생기며 백색과의 대비에서 극적인 명암대비가 나타난다. 백색은 근접한 색의 명도를 약화시키는 반면 흑색은 근접하는 색을 한층 밝게 보이게 한다. 흑색은 색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으로 명암대비에서 주조색으로 사용된다. 명암에 관한 가장 극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흑과 백 두색이다. 무채색의 명암대비는 유채색과 달리 단정적이고 경직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추상적 효과를 발생시킨다.⁶⁾ 흑색은 색의 대비에서뿐 아니라 전체 조화에서도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색채학자 파버 비렌(F. Birren)이 단순한 형태의 색 3각형을 고안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흑색의 조화에 대하여 크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흑색, 회색, 백색의 조화로 무채색끼리의 자연스런 조화를 말한다. 이 배색은 명도의 연속으로 안정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검정색은 무겁게, 흰색은 가볍게 보이므로 구축적으로 잘된 질서와 인쇄술상에 좋은 질서가 있다. 둘째, 흑색, 암색조, 순색의 조화로 색채의 깊이와 풍부함이 있다. 세 번째로, 흑색, 백색, 순색의 조화로 단순하며 가장 활기 있게 표현된다.⁷⁾

색채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크게 색을 보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일차적인 색채의 감정적 효과와 심리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이차적인 현상 즉, 연상, 색채기호, 상징 등으로 나눌 수 있

3) ISCC-NBS색명법 ; 미국 색채연락 협의회(ISCC)에 의해서 1939년에 고안된 일반색 이름 부르는 법이다. 미국립 표준국(NBS)에 의해 채용되면서 「ISCC-NBS 색명법」이라 지칭되었다. 면셀 색입체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들을 형용사로 사용하여 수식하는 계통 색명법이다. 박도양, 「실용색채학」, (서울 : 이우출판사, 1987), p.50.

4)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서울 : 미진사, 1989), p.190.

5) 윗글, p.190.

6) 김학성, 앞글, p.51.

7) 파버 비렌, 윤일주 역, 「색채의 원리」, (서울 : 민음사, 1977), p.64.

다. 흑색은 감각적으로 따뜻하며, 수축색이며 중량감이 있으며 주위의 색을 돋보이게 하는 주목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색의 연상은 경험과 인상에 의해 발생하는 작용으로 흑색은 일반적 느낌으로 어두운 공간, 중립, 밤, 공허를, 직접적 연상으로 애도, 불길함, 죽음, 억압⁸⁾을 연상시킨다. 색의 기호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정한 색을 연상하는 개인적 충동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색의 기호는 개인적 연상에 의해 결정된다. 흑색의 연상이 부정적인 만큼 흑색에 대한 기호도 부정적이다. 흑색의 전통적 상징성은 자연물에서 흙과 공기를, 지상의 사방위와 행성에서 북쪽과 토성을, 신분 및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흑색은 모든 서양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통적인 색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2. 회화에 나타난 흑색

원시회화에서 흑색의 사용은 숲의 검정색에서 출발하여 고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색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체계적인 색채 연구가 시작된 르네상스시대에 흑색은 어두움의 표현과 기본색의 혼합을 위한 2차 색으로 쓰여지다가 낭만주의 시대 이후 흑색은 색으로서 독립적인 상징성을 갖게 된다.

흑색이 정신적 표현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스페인 화가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의 그림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고야는 1819년대 커머거리 집(Quinta del sordo)을 구입한 후 한차례 격렬한 투병생활은 치르면서 ‘흑색의 회화(black painting)’를 탄생시켰다.⁹⁾ 이 시대의 작품들은 잉크를 써서 대부분의 색깔을 제한하고 심도 깊은 흑색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블랙 페인팅 작품들



[그림 1] 먹고 있는 두 노인, 1821~23, 「Goya」

은 고야의 고통스러운 병과 노년, 반복되는 정치 사회의 혼란과 공포에 대한 작가의 내면세계의 표현이다.¹⁰⁾ [그림 1] 프랑스 상징주의 화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 1840~1914)은 자신의 1870년대와 1880년대의 목판화 및 석판화를 ‘noir(흑색)’라고 불렀으며, 이 시기에 그는 거의 흑백만을 사용하여 작업을 했다. 르동은 인상파가 현란한 색채만을 구사한 시대에 주로 흑색만을 사용하여 야릇한 밤의 세계, 꿈의 풍경 등 괴기환상적 세계를 표현하였다. 한편 표현주의자인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흑색은 뭉크의 허무주의적 철학과 병약한 어린 시절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현대회화의 시작을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들>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세잔이 처음으로 색을 ‘조형적 색채’로 사용하였음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순수 추상미술의 차원으로 이어진다.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언급되는 칸딘스키는 흑색은 “가능성이 없는 무(無), 지는 해를 쫓아가는 죽은 무(無), 미래와 희망이 없는 영원한 침묵과 같은 것이 바로 검은색의 내적인 울림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흑색은 외적으로 가장 음향이 없는 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 색과 비교하면 어떠한 다른 색깔도, 더 강하고 더 명확한 음향으로 울리는 것이다”¹¹⁾ 하였다. 순수한 리얼리티를 조형적으로 창

8) 파버비렌 / 김화중 역, 「색채심리」, (서울 : 동국출판사, 1989), p.182.

9) M 아브루 헤세 / 박호철, 「프란시스코 고야」, (서울 : 열화당, 1980), p.67.

10) 알폰소 E 페레스 / 정진국 역, 「GOYA」, (서울 : 열화당, 1990), p.134.

11) W. 칸딘스키 /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서울 : 열화당, 1979), p.83.

조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형을 형의 불변의 기본적 요소로, 자연의 색채를 원색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몬드리안은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형태에 있어서 수평선과 수직선은 색에 있어서 적, 청, 황, 흑, 회, 백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¹²⁾고 하였다. 그에게서 흑색은 화면을 분할하여 안정과 명쾌함을 가져오는 뚜렷한 선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흑색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서 백색과의 대비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잭슨 폴록, 드루닝, 프란츠 클라인 등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 화가에게서 그러하다는 것은 이 운동과 흑색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드루닝(Willem de Kooning)의 흑백회화는 그의 가장 ‘추상표현주의’적 작품이며 1940년대 중반의 신화적 관심과 양립하는 반항적 심상과 구성의 자동 현상적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¹³⁾ 그의 작품 [Dark Pond : 1948]에서의 흑색은 도시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음이 잘 드러난다.¹⁴⁾ 반면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그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1950~1953)에 흑색 Duco(자동차 도료)을 사용하여 ‘블랙 페인팅(black paintings)’이라는 이름으로 특색지워지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흑색과 백색의 거친 대비와 격렬한 흑색의 선을 사용하여 제작했던 폴록은 마치 캔버스 위에 있는 악마를 나타나도록 강요하듯이 필사적이고 공격적이다. 그것들은 불안과 자기고뇌 및 자기의심이 새겨진 것을 보여준다.¹⁵⁾ 캘리 그래피(Calligraphy) 기법¹⁶⁾으로 널리 알려진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1910~1962)은 1950년부터 제작한 규모가 커다란 흑백의 추상은 약

10년간 이어졌다. 그 작품들의 독특한 특징들은 크고 거칠지만 절제된 붓질, 강력하고 건축적인 구조 그리고 백색 바탕에서 단순하게 흑색 드로잉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백색의 등가성(等價性)이 잘 나타나 있다. 프란츠 클라인의 흑색 작품에서 뉴욕 중심부에서 볼 수 있는 마천루의 골조, 육교, 철교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마호닝(Mahoning), 1956, 「Franz Kline」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 1>

3. 디자인에 나타난 흑색

디자인에서 흑색은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그 주요 등장배경으로 도덕적 장벽, 산업혁명과 기계미학, 바우하우스의 영향으로 정리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대량 생산제품은 놀랍게도 컬러 시스템의 빈곤을 보인다. 그들의 컬러는

12)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 일지사, 1976), p.85.

13) 니코스 스텐코스/성완경, 김한예 역, 「현대미술의 개념」, (서울 : 문예출판사, 1994), p.282.

14) Harry F. Gaugh, 「De Kooning」, (New York : Abbeville press, 1982), pp.26-27.

15) Warner Haftman, 「Painting in the twentieth Century」, An Analysis of the Artists the work, pp.349-350.

16) 캘리 그래피(calligraphy) :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붓이 단순히 안료를 캔버스에다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붓 그 자체의 운용에 표현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법, 이것은 정신주의적 동양철학에 기본을 둔 동양회화양식에서 기인된 것이다. 월간미술편저, 「세계미술용어 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pp.393-394.

<표 1> 회화에 나타난 흑색의 조형적 특징 및 상징성

작가 및 시대	특성	조형적 특징	상징성
고야의 블랙 페인팅 시대 (1814~1820)		제한된 색상, 심도깊은 흑색 사용, 흑색을 배경으로 빠르고 대담한 붓질.	노년과 죽음 억압된 자아의 표출 작가의 내면세계
르동의 Noir 시대 (1840~1880)		환각을 일으키는 흑백의 명암 현실계의 비례를 도치시킴 형태의 자율성, 평면성 강조	'정신'의 대리인 환상의 세계
퉁크 (1863-1944)		흑색과 원색과의 강한 대비	죽음
칸딘스키 (1866-1944)		가장 어두운 색 가장 구심적 운동의 색 가장 정적인 색 수평선	無 침묵 죽음
몬드리안 (1872~1944)		조형적 색채 강조, 흑색선은 분할된 면을 안정감과 명쾌함을 줌 각색면의 교묘화 근접색을 밝게, 긴장감을 줌	
드루닝의 흑백추상 (1946~1949)		흑백의 강한 대비로 인한 모호성 유발 흑색의 실험적 시도 자동 기술 기법	도시 정신세계 색의 無
잭슨폴록의 블랙 페인팅 시대 (1951~1956)		흑백 대비 격렬한 흑색의 선 자동차 도로 사용	비탄, 불안 자기고취 색의 無
프란츠 블라인 (1910~1962)		흑백의 대립 거칠지만 절제된 붓질 강렬한 건축 구조 자동기술 기법	도시 색의 無

거의 흑, 회, 백, 브라운색으로 한정되어 있고¹⁷⁾ 밝고 선명한 색상은 드물고 크게 대비되는 색상은 더욱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중 하나는 청교도의 도덕성의 결과이다. 그 당시 대량소비를 위한 생산품의 제조는 청교도주의의 도덕성에 뿌리를 둔 자본주의자들의 도덕적 고려와 호평을 이루며 전개되었기 때문이다.¹⁸⁾

산업혁명 이전의 주된 생산 수단은 수공업, 즉 손과 도구에 의한 생산이었으나 산업혁명에 의해 거대한 에너지와 그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기계는

인간노동을 대신하여 균질의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윌리엄 모리스의 [만인을 위한 민중의 예술]의 지향과 1906년 뮌헨에서 설립된 독일공작연맹(DWB)과 1915년 영국의 산업디자인 협회(DIA)라는 단체의 설립 등으로 기계주의자들의 '적합성'과 '경제성' 원칙을 받아들였으며, '기능주의적' 이념에 집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대의 기계미학에 대한 레제의 글에서 "아름다운 기계 그것은 오늘날의 아름다운 주제이다"라고 기계를 예찬함으로써 멋과 더불어 기능성을 가진 산업디자인도 예

17) Jocelyn de Noblet, 『Industrial Design』, (flammarion / APCI, 1993), p.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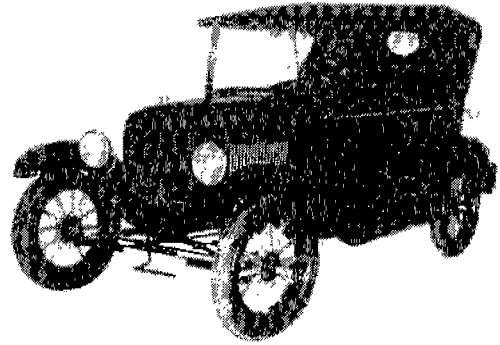
18) 윗글, p.339.

술과 대등한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때 ‘검정 색은 정직한 색이다’라는 통념이 팽배해 있었다.¹⁹⁾

1919년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건축, 조각, 공예, 회화를 종합적 예술로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예술과 산업의 완전한 융합을 강조하였다. 바우하우스는 색채에 있어서도 테스트 이론을 따랐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색상을 사용하였다.²⁰⁾ 또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근거하여 1955년에 설립된 울름조형대학도 브라운사와의 합작 제품에서 색채의 사용을 흑백으로 제한하였다.²¹⁾

위의 시대적 배경으로 디자인에서의 흑색은 대량생산에 적합한 무장식적이고 기계적인 색상이었으며 따라서 가장 현대적인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1908년 포드사가 발표한 T형 포드[그림 3]가 대량생산성과 그 출발을 같이한다. T형 포드는 자동차가 이전의 부자들의 도락을 위해 화려하게 꾸민 사치품이 아니라 실용위주의 대중의 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발매 당시 950달러에서 1924년에는 290달러로 판매하였다.²²⁾ 이때 T형 포드의 색은 흑색 한가지였다. 또한 1920년대 이전의 파커 만연필은 검정색뿐이었다. 이 시대의 흑색은 대중을 위한 색으로 기계 미학에서 나온 균질화된 색이었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아돌프 루스(Adolf Loss)는 「장식과 범죄(Ornament and Crime)」이라는 저서를 통해 극단적인 무장식성을 강조하였으며,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뷔제는 기계적 스타일의 회화와 건축을 주창하면서 백색이 대표적인 무장식의 컬러로 선택되었으며, 반면 제품디자인에서는 흑색이 장식보다 기능을 앞세우는 색상으로 제시되었다. 1871년 개발된 싱거(Singer)사의 재봉기계와 1929년의 지멘스(Siemens) 신형 전화기는 무



[그림 3] 헨리포드의 모델 T형 자동차, 1918, 「Industrial Design」

장식적 흑색인 동시에 기능성을 부각시킨 제품의 예이다. 시대성을 떠나 흑색의 기능성이 상징성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카메라와 관련된 장비일 것이다. 카메라에서의 흑색은 어떤 특수한 유색이 되기 위한 논리적인 이유는 갖지 않은 것을 대신하여 논리적인 색상 표현이 되었다.

디자인에 나타난 흑색은 현대성을 대표한다. 산업디자인에서의 현대성은 기계생산과 신제품의 발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론」의 저자 허버트 리이드는 “기계장식이 갖는 장점은 정확성과 추상성의 조화이다”²³⁾라고 하였다. 즉 디자인에서의 현대성은 정확성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이다. 한편 색채의 조형성을 강조한 몬드리안은 색중에서 가장 정확성을 띤 색은 원색과 흑색²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기 산업사회는 정교도적 도덕성에 근거하였으므로 원색은 배제되었고 더구나 흑색은 색의 부재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기능성을 부각시키는 초기 기계생산 제품에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흑색이 현대성을 대표하는 색으로 인식된 것이다.

19) 스티븐 베일리/손효철 역,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역사」, (서울: 열화당, 1985), p.28.

20) Jocelyn de Noblet, 앞글, p.336.

21) 레이몽 기도/김호영 역, 「디자인의 역사: 1940~1990」, (서울: Ars edition, 1994),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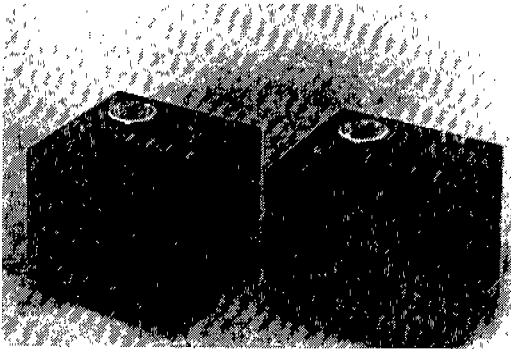
22) 김훈철 외, 장영렬, 「감성시대 카라마케팅」, (서울: 사민서각, 1991), p.296.

23) 허버트 리이드/정시화 역, 「디자인론」, (서울: 미진사, 1979), p.186.

24) 김현철, 「몬드리안의 조형공간 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6), p.66.

〈표 2〉 흑색 디자인의 출현배경과 조형적 특징 및 상징성

시대	특성	흑색 디자인 출현 배경	조형적 특징	상징성
19세기 말 20세기 초		도덕적 장벽	흑색의 단색조 직선주의적, 기능주의적형 매끈하고 미묘한 표면 기계적 인공재료	현대성 기능성
1910~1920년대		기계 미학		
1920년대		바우하우스의 영향		



[그림 4] 마르코 자누소의 텔레비전 블랙, 1969, 「디자인의 역사」

이상 흑색의 상징성은 크게 기능성과 현대성으로 요약된다.

흑색제품의 조형적 특징은 “디자인과 환경”의 편집자인 앤 페레비(Ann Ferebee)가 분석한 ‘산업디자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3대 양식’에 의하면 흑색은 자연에서 발견하기 어려우며 극히 인공적인 색이므로 기계에 수공하는 표현방식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흑색은 형태는 사각형이나 방사형이며 선은 직선적이며, 표면은 매끄러우며 재료는 균일한 인공소재에 적합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이상 본장에서 살펴본 흑색 디자인의 주요 출현 배경과 상징성 및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되었다. <표 2>

Ⅲ. 패션에 나타난 흑색

1. 흑색의상의 사적 고찰

1) 르네상스 이전

흑색의(黑色衣)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시대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었다. 丹野郁의 「서양복식발달사」에 의하면 “히메치온(himaton)의 색은 여러 가지로 파랑, 장미색, 자색, 흰색, 검정색 등이 쓰였다.”²⁵⁾라고 언급되고 있다. 로마시대의 흑색은 신학자의 의복색으로 모직물의 자체색인 칙칙한 흑색은 서민의 색이었다. 또한 이 시대에 흑색은 가죽으로 된 신발에서도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중세의 흑색은 전통적인 상(喪)의 상징이었으며 중세말까지 노동자 계급은 거의가 흑색을 입었고²⁷⁾ 귀족들에게는 모피, 즉 흑양이나 흑담비의 털을 이용한 코트(coat)에서 일부 나타난다.

2)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15세기가 시작되면서 유럽은 벨벳(velvet)과 브로케이드(brocade)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흑색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15세기 동안에 가장 사치스럽게 입었던 브르고뉴(Bourgogne (영) Burgundy)의 군주 필리프의 의복에 대하여 “검은 우뿔랑드에 왼쪽 소매에는 금으로 만든 장미가지무늬...”²⁸⁾라고 기록되어 있

25) 丹野郁(1979), 서양복식발달사 고대, 중세편, 동경, p.75.

26) 블랑쉬 페인 /이종남 외 역, 「복식의 역사」, (서울 : 까치, 1965), p.115.

27) 만리오 브루자틴 /이수균 역, 「색이론 역사를 중심으로」, (서울 : 미진사, 1996), p.50.

28) 블랑쉬페인, 앞글, p.245.

다. 그러나 흑색의상의 유행은 스페인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16세기에 복식의 절제미로 유명한 스페인 국왕 찰스 5세(Charles V)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 비롯된다. 또한 스페인 궁정이 모든 유럽의 칭송을 받는 시기인 1556년, 찰스 5세의 뒤를 이은 필립2세때 ‘프랑스 국왕 헨리2세는 스페인 패션을 모방하여 거의 항상 검정색 의상을 착용하였다.’²⁹⁾는 기록을 보아 스페인 이외의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흑색이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흑색의상은 완전한 흑색의 사용보다는 금색과의 조화로 다분히 화려하고 귀족적인 흑색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흑색의상이 유행되었는데, 16세기 프랑스에서 보여진 스페인 영향의 흑색 궁정복 보다 흑색만으로 제한이 높아졌으며 색상의 대비보다는 소재의 표면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기의 네덜란드풍의 의복은 복식문화의 중심이 귀족에서 시민에 옮겨가는 초기과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흑색이 또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이때의 흑색은 귀족적인 화려한 흑색에서 보다 소박한 흑색의 의미를 더 내포하게 된다. 또한 네덜란드는 행정관과 청교도에 믿음이 깊은 부르주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이들의 의상이 검은색이었다. 즉 네덜란드의 흑색은 엄숙함의 표본인 신교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이었다.³⁰⁾

3) 19세기-낭만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남성은 밀려들어 오는 산업화의 물결과 늘어나는 공장 그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과 도시 생활, 이런 것들이 남성들의 우아한 의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했다. 또한 교통

의 발달과 정보로 인해 세계는 더욱 가까워져서 점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일상복을 입게 되었다. 19세기는 한마디로 산업혁명의 완성기이며 남성복의 현대화의 시기이며 흑색의 승리의 시기이다.

18세기 말까지 남성복은 여전히 화려했으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815년 나폴레옹 1세의 제1계정까지 30년간 복식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귀족풍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다. 남성을 위한 새로운 소재로 폭이 넓은 검은 모직물(broad-cloth)이 남성용 겹옷에 쓰였던 실크와 벨벳을 대신하기 시작했다.³¹⁾ 시민혁명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남성복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긴바지 착용과 색채로 나타난다. 또한 19세기 들어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던 국민의회는 신분에 의한 의상 강제법의 폐지를 포고함으로써 복장의 민주화가 헌법으로 보증되었다. 이것은 부르주아의 생활 전반에 걸친 승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멸시되었던 흑색이 의례와 공공용의 색으로 승격하여 새롭게 권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³²⁾

또한 남성복의 흑색의상의 정착은 「악의 꽃」을 발표한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보들레르의 댄디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이, 매 시간, 매 계절마다” 검정색만을 고집하였다. 보들레르의 검은옷에 대한 고집은 주위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또한 그는 “검은옷(black suit)은 항상 같지만 어느 계절, 하루중 어느 때라도 문제가 없으니 얼마나 놀라운가?”라고³³⁾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댄디즘의 블랙 이후 남성복의 흑색은, 공식적 행사뿐 아니라 패셔너블한 의미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4) 현대

29)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2), p.88.

30) 윗글, p.108.

31) D.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3), p.306.

32)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1991), p.343.

33) Valerie Steel, 「Paris Fash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82.

프랑스 혁명이후부터 시작된 남성복의 표준화는 19세기에 정착되었으나 여성복은 비로소 20세기에 1세기 전의 남성복이 겪었던 변화를 밟게 된다. 20세기 초반 25년간 여성복의 강력하고 새로운 테마는 '여성이 무엇일까'하는 것이었다.³⁴⁾

1908년 아르데코 패션에서 나타나는 흑색은 금색과 적색과의 강한 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흑색 자체의 독립적 성질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와서 속도와 효율의 개념에 기초한 소재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여성의 삶과 의식에서의 급격한 효율성의 개념이 의복에 도입되었다. 샤넬(Chanel)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가 1926년 미국 「Vogue」에 발표되면서, 그 당시 기능주의 승리의 상징인 T형 포드 자동차와 견주어 'Fashion Ford'라는 찬사를 받았다.³⁵⁾ 이로인해 1920년대의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여성복의 완전한 현대화를 보여주는 계기 되었다.

흑색이 현대의 여성복에 정착하게 되는 또다른 배경으로 흑색사진과 흑백영화의 등장이 있다. 1920년대 흑백사진이 현대 패션잡지를 지배하게 되면서 패션을 장악하여 흑백의 이미지의 직물 중심의 경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흑백영화에서의 의상은 윤곽이 뚜렷함을 필요로 하게 되며, 흑색의상의 완벽한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1940년대는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가 스키아 파넬리의 화려함을 몰아냈다. 샤넬을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 엄격함과 계속되는 검정의 사용으로 돌아가기 위해 힙과 보디스에 패드를 달고 주름을 지게 해 오히려 코르셋을 강조시켰다. 크리스찬 디오르의 흑색은 그의 의상이 "여성적 향수"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함을 부여했다. 그의 취향은 검정색 모직, 검정색 크레이프, 검정벨벳, 검정과 흰색으로 된 트위드 등이었다. 1952년 그는 "새로운 패션의 정수는 사

려 깊은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³⁶⁾

같은 시기에 흑색은 스페인의 흑을 이어받은 발렌시아가(Balensiaga)의 흑색은 분명 스페인적 흑색이다. 장례식을 연상시키고 종교적인 블랙이었다. 발렌시아가의 의상에 나타난 흑색은 귀족적인 우아함과 화려한 레이스 의상에서도 스페인의 우울함이 나타나 있다.

1940년대 패션에서의 청소년문화는 2차세계대전 이후 산업의 발전과 경제권이 부여된 청소년층이 사회변천의 원동력 내지는 패션변천의 주요인자로 부각되면서 탄생하게 된다. 비츠(Beats)는 2차대전 후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미국 사회를 거부하는 작가와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검정스커트, 무용수의 검정 레오타드 탑과 검정 타이츠는 비트족 여자들의 패션경향이었다. 그들은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존재의 나약함과 그로 발생하는 '불안'에 잠겨 있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비트족에게 나타난 것이 검은색이었다.

1960년대는 미국의 대중문화의 위력과 기성복 산업의 발달 등으로 패션은 점차 모험적이고 대중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1960년대는 「젊음의 폭발 시대」로 여성들은 경구용 피임약으로 인해 보다 성(性)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1960년대의 흑색 의상은 「Vogu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리틀 블랙 드레스, 블랙 가죽 스타일, 블랙 판타론 슈트, 블랙 씨-쓰루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1960년대에는 "가장 순수한 색채가의 옷은 a little black silk dress"라 하여 모든 디자이너가 공유하는 기본 스타일이 되었다. 1963년 가죽이 유행되면서 블랙은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었고 1965년에는 블랙비닐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룩이 유행하게 된다.³⁷⁾ 한편, 샤넬이 1920년대 부여한 엄격한 블랙이 1960년대에는 정장 스타일의

34) Anne Hollander, 「In Black and White」, (The Ohio university, 1992), p.7.

35) Jean Le maire(1987), 「Chanel」, (New York : Rizzoli, 1987), p.103.

36) Peter Wollen, 「In Black and White」, (The Ohio University, 1992), p.34.

37) 「Vogue : USA」, Aug. 1965, p.13.

덴디 수트³⁸⁾에서 부각된다. 이브생 로랑은 한발 더 앞서 상하 모두 흑색으로 된 팬츠와 재킷의 정장을 선보임으로써 7세기 동안 결정적으로 남자의 특권이었던 바지를 여성정장에 사용하였다.³⁹⁾ 또한 1960년대의 흑색은 50년대말 로큰롤의 인기와 함께 영국에서 발생한 록커(Rocker)들에 의해, 검정 가죽 재킷의 불량하고 저항적 이미지로 하위문화에서 확산되었다.⁴⁰⁾

1980년대는 패션이 국제적으로 하나로 응집되는 기간이었다. 이탈리아,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지점을 내어 교두보로 삼았다. 블랙은 1980년대의 가장 강력한 색상이 되어 거의 10년간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블랙이 유행하게 된 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1980년대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운동 붐이 일어나고 옷은 품위를 드러냄보다는 그들의 매력적인 몸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대표적인 스타일로 호리호리한 블랙 레깅스(leggings)는 큰 재킷, 험렁한 스웨터, 실크 타프타 셔츠 등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되었다. 반면 일본의 두 디자이너 레이가와쿠보(Reikakubo)와 요지야마모토(Yohji Yamamoto)에 의해 오로지 여성 자신만을 위해서 입는 새로운 형태의 블랙이 선보였다. 그것은 기하학적이고 비대칭적 형태로 신체를 뒤덮었으며 장식적이지 않고 심각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확산되었다.⁴¹⁾ 1960년대의性に 대한 도전은 80년대에 더욱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표면화된다. 디자이너들은 성욕을 자극하는 비밀상적인 분야를 찾

기에 경쟁하며 청소년 하위문화에서는 페티쉬(Fetish), 펑크(Punk), 고스(Goth) 패션 등이 등장하게 된다. 페티쉬 패션은 의복을 매개체로 하여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으로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타이트하고 뻣뻣한 옷으로 신체의 압축에서 자기 발정적 기교(autoerotic mechanism)를 나타낸다. 페티쉬 패션은 1960년대에 런던에서 검정의 가죽이나 PVC로 만든 싸구려 옷들의 유행에서 시작되었으며, 1983년 런던의 소호에 'Skin 2'라는 클럽의 오픈링때 고무제품에 열광하는 자와 가죽과 난잡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때부터 검은 고무가 페티쉬 패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 영국에 등장한 펑크(Punk)들은 허무하고 부정부적이고 독단적인 감정을 색상에서는 흑색으로 발산하였다. 그들은 검은 눈, 검은 입술의 메이크업과 검정 가죽 점퍼, 검은 글씨의 부정부주의 깃발 등에서 흑색에 '죽음'과 '절망'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발전하여 영국 북쪽지방에서 온통 흑색으로 칠해버리는 고스(Goth : 악마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검정벨벳과 레이스, 그물망 등을 이용한 풍성한 스타일과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주제를 새겨 넣은 은제 장신구 등을 선호하였다. 머리는 칠흑(jet black)이고, 빨강이나 검정으로 물들인 눈과 얼굴은 죽은자처럼 하얗게 분칠했다. 고스의 흑색은 죽음 그 자체이며, 본성을 자극하여 죽음이 드리워진 운명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시대별 주요 흑색의상과 출현배경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되었다. <표 3>

<표 3> 시대별 주요 흑색의상과 출현배경

시대	흑색의상	흑색 출현 배경
르네상스 이전	종교복, 상복, 서민복	주술적, 종교적인 영향 경제성

38) 「Vogue : USA」, Aug. 1964, p.13.

39) Anne, Hollander, 앞글, p.22.

40) Mablen Johens, 「Getting it on」, (N. Y : Abbeville press, 1987), p.53.

41) Vicky Carnegie, 「Fashion of decade : The 1980's」, (London : B. T Batsford, 1990), p.20.

르네상스 시대	국왕 및 귀족복 화려한 귀족복, 흑색과 금색의 조화	15세기 버건디공 군주 필리프의 사치 16세기 스페인의 영향
17세기	시민복의 등장 시민복과 귀족복의 융합으로 간소한 형	네덜란드의 영향
19세기	부르조아를 중심으로 한 시민복 덴디들의 냉정한 간소형	시민혁명의 정착 산업사회의 도래 부르조아의 정치적 승리 보들레르 덴디즘
1920년대	샤넬의 little black dress 표면과 형태가 중시된 블랙 명확한 실루엣의 블랙 스타일	여성의 의식 변화 흑백사진과 흑백영화로 인한 컬러 퇴조 사회적 애도 기간 종말
1950년대	발렌시아가의 블랙 비츠(beats) 스타일	스페인 취향의 흑색 부활 청소년 하위문화와 실존주의
1960년대	리틀 블랙 드레스 블랙 판타론 정장 씨-쓰루 블랙 검은 가죽의 룩커스타일	젊음의 폭발 시대 성의 개방 청소년 하위 문화-Rocker
1980년대	바디컨서스 블랙 노출형 블랙, 블랙 란제리 검은가죽 또는 고무	신체에 관심 집중 성에 대한 강한 집착 청소년 하위 문화-Punk, Fetish, Goth

2. 흑색의상의 조형성

회화는 2차원이고 디자인은 2차원과 3차원이 공용되며 의상을 입은 신체는 움직이는 3차원이라고 볼 때 회화와 디자인에 적용된 ‘조형적 색채’는 의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회화, 디자인에서 고찰되었던 흑색의 조형적 특성을 흑색의상에 나타나는 조형성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형태

(1) 단순형

몬드리안은 가장 기본적인 색을 원색과 흑, 회, 백색으로 한정하여 형태의 단순함을 추구하였다. 칸딘스키는 흑색은 가장 정적인 색이며 구식적인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색의 감정적 효과에서도 흑색은 가장 무거운 색이다. 이러한 흑색의 특징은 의상에서 흑색이 복잡한 형태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집중되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흑색의상의 단

순형은 최초로 시민복과 귀족복의 융합을 보인 17세기 네덜란드의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부르조아의 흑색의상은 19세기 산업사회에 적합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단순형으로서 남성복의 규격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덴디들은 ‘단순한 것이 진짜로 더 나은 것이다’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단순형을 추구하였다.

디자인에서의 흑색 출현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제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형태는 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단순형이었다. 의상에서 이러한 기계적인 단순함을 잘 반영한 것이 바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이다. 이 ‘리틀 블랙 드레스’는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여성들의 저녁 모임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흑색의 강한 우아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에 패션에 불어닥친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과 비교하여 형태에서 뿐 아니라 색에서도 흑색을 사용함으로써 최소주

의 정신을 부여하였다.

(2) 밀착형

색의 감정적 효과에서 흑색은 가장 구심적인 운동을 하는 후퇴색이며 수축색이었다. 데스틸의 주도자인 반두즈버그는 흑색은 부피의 색이며 가장 수축적인 색이라고 하였다. 댄디들은 몸에 꼭맞는 완벽한 재단으로 흑색을 선호하였으며, 1920년대 1930년대의 사넬을 비롯한 파투, 랑방(Lanvin) 등도 흑색을 이용한 여성적이고 우아한 밀착형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밀착형의 흑색의상은 중세때부터 착용한 검은 호즈에서 비롯되었으며 20세기에 스커트 길이가 올라가면서 검은 스타킹을 신었으며 1980년대의 가장 유행한 레깅스 스타일로 이어진다. 1980년대는 의복에서 보다는 신체를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했으며 이때 흑색은 가장 수축되는 색인 이유로 널리 유행되었다. 이때의 블랙은 '바디 컨셔스 블랙(body-conscious black)'이라고 하였다. 물론 밀착형은 다른 색상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형태이지만 흑색만큼 인체를 축소시켜주는 색상은 없기 때문에 흑색과 밀착형은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3) 노출형

칸딘스키는 '흑색은 가장 음향이 작은 색이고 아무리 약한 음향을 가진 색이라도 더 강하고 명확하게 울린다'고 하였다. 색의 조형적 자율성에서 몬드리안은 흑색으로 말미암아 근접색은 밝고 명쾌함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을 의상에서는 흑색이 인체의 피부의 색과 맞닿았을 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즉 흑색의상을 입음으로써 인체의 피부는 긴장감을 가지며 강하고 명확하게 된다. 제2장에서 살펴본바 흑색의 특성중 색의 명시도에서 주목성이 가장 높은 배색은 검정바탕에 노랑, 노랑바탕에 검정, 검정바탕에 흰글씨 순이었다. 이것은 백인과 황인종이 흑색의상을 입었을 때 그 어느 색상보다도 주목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흑색이 노출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말해준다.

노출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하거나 성적 부위를 강조시킨 단순 노출형과 둘째, 피부와 흑색의 의상과의 대비를 이용한 흑색의 패턴화된 형태로 분류된다.

흑색의상의 여성의 창백미를 더욱 강조시켜주는 특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는 파티장소에 여전히 깊게 파인 검은 드레스가 유행에 관계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흑색의 패턴화는 패티쉬 패션을 하이 패션에 도입한 아제딘 알라리아(Azzedine Alaïa)에 의해 시도된다. [그림 5] 그는 흑색 가죽 또는 고무를 피부와 직접 닿게 하여 색의 강한 대비로 인한 성적 충동을 자극시키는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흑색의 패턴화 방법은 1990년대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색채에서도 패션의 다색화가 이루어졌을 때, 흑색을 유행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이는 마치 흰 캔버스에 흑색을 사용해 강한 대비를 이루는 1940년대의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



[그림 5] Azzedine의 패티쉬풍의 블랙드레스, 1986, 「Vogue」

2) 소재

(1) Dazzling(광택) 소재

흑색은 단순히 빛을 잃음에 따라 느껴지기도 하지만 빛의 자극이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색을 동시에 볼 때 따라 비로소 검게 보일 수 있다. 흑색은 광택성이 유효하게 사용된다. 앞에서 살펴본바 흑색의상의 주요 소재인 벨벳, 시레(ciré), 사틴, 타프타, 가죽, 비닐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검은 벨벳은 분명 가장 검은 흑색이며”⁴²⁾라고 색이론가 요하네스 이텐이 말하였다. 16세기 스페인 모드의 유행 때 블랙 벨벳의 가장 전성기였다. 벨벳과 함께 사틴도 남성의 귀족복에서 여성의 우아한 드레스에서 계속 사랑을 받았다. 1940년대 크리스찬 디오르와 발렌시아가 등의 흑색 타프타 드레스는 단순한 형태보다는 주름과 셔링으로 인한 빛의 변화를 주는 복잡하고 풍성한 스타일에 주로 사용되었다. 흑색의 광택 소재에 가장 많은 스타일은 몸에 밀착되는 형이다. 이는 빛의 반사에 의해서 신체의 볼륨감을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흑색 가죽으로 온 몸을 밀착시킨 페티쉬 패션이라 하겠다.

Dazzling 블랙의 빛에 의해 나타나는 미묘한 효과 때문에 이런 블랙은 낮보다는 밤에 조명 하에서 더욱 돋보인다. 벨벳과 새틴은 우아한 파티드레스로 검은 가죽과 비닐은 음침한 밤거리에 분위기는 다르지만 모두 밤에 더욱 어울리는 것이다.

(2) See-through(비치는) 소재

비치는 소재에는 크게 레이스와 투명한 소재가 있다. 레이스가 처음 생산된 것은 16세기 중엽 이탈리아와 프랑드르 두나라에서이다. 흑색 레이스의 매력은 고야의 「알바공작부인의 초상화」에 잘 나타나 있다. 스페인 부인의 흑색 맨틸라(mantilla : 큰 베일)는 태양의 거칠은 빛에 의해 창조되는 그림자의 블랙이다.⁴³⁾ 그것은 남부 스페인의 블랙이며 장례식을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흑색레이스는 스페인의 뿌리를 둔 발렌시아가에 계 이어진다. 이러한 스페인 취향의 블랙 레이스는 레이스가 등장할 때마다 또는 민속풍이 유행될 때 자주 재현되었다. 1960년대 블랙 레이스 속옷이 유행되었고 1980년대에 다시 부활하였다. 흑색이 다른 색상보다 피부와의 색상대비가 크므로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흑색은 가장 섹시하게 보이는 란제리 색상일 것이다.

주요 투명한 소재는 오건디, 쉬폰 블랙으로 코팅한 비닐 등이 있다. 흑색의 비치의 소재는 일종의 훔쳐보기(voyeurism)의 양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시키며 완전 노출보다도 더욱 섹시함을 제공하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흑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현대의 성의 집착에 대한 디자인 몰두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 생각되며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3) Matte(밋밋한) 소재

흑색의 밋밋한 소재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직이다. 19세기에 고급 모직물이 생산되면서 그 이전까지 실크와 벨벳의 남성복이 모직물로 교체되었고 이때 흑색은 대단히 유행하게 되었다. 19세기가 흑색의 승리의 시기라고 하는 데에 남성복의 흑색모직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크리스찬 디오르를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도 정교한 봉제선과 함께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에 집중하였다. 흑색이 광택 소재에서는 저녁 모임에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흑색의 매트한 소재는 절묘한 재단과 봉제로 인한 완벽한 실루엣과 변화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 맨디등의 슈트나 정교하게 디자인된 몸을 감싸는 드레스, 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리틀 블랙 드레스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흑색의상의 상징성

42) 요하네스이텐/김수석 역, 「색채의 예술」, (서울 : 지구문화사, 1976), p.58.

43) Marie Andr e Jouve, 「Balenciaga」,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8), p.303.



[그림 6] 1980년대 초 박쥐무덤 클럽, 「Street Fashion」

1) 죽음, 애도, 우울

죽음은 흑색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상징이다. 전통적인 상징에서 “검정은 서양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통적인 색이다.”라고 하였다. 회화에서도 고야와 몽크 등은 죽음을 의인화하기 위하여 흑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흑색의 일반적 상징인 죽음은 흑색 의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상복에서 나타나며 고대 이후 현재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흑색의 ‘죽음’의 상징이 1980년대의 펑크의 허무주의를 이어받은 청소년 하위 집단인 ‘고스(Goth)’에 의해 관심이 집중되며 이는 1990년대 많은 디자인에서 흑색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그림 6]

‘죽음’과 ‘애도’는 ‘우울’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흑색의상의 ‘우울’은 고야의 1794년 ‘카프리오(caprio)의 초상화’에서 스페인 영혼의 우울이 검은 의상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림 7] 이러한 스페인의 ‘우울’의 감정은 스페인 디자이너인 발렌시아가에게 그대로 남아 그의 흑색의상에 강한 상징이 되고 있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 보드레르는 그의 대표시 「악의 꽃」 중 「spleen(우울)」에서 흑색을 ‘우울’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드레르는 덴디



[그림 7] 카프리오 백작 부인, 1794~1795, 「Goya」

즘에 대한 이론가로서 검은 의상을 입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는 이 흑색의 ‘우울’을 즐겼다. 이 우울의 감정은 현대인들의 밑바닥에 잠재해 있는 공통적인 감정으로 여기에서 청소년 하위 문화의 저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2) 엄격함

15세기 버건디 궁의 군주의 흑색의상 착용을 계기로 흑색은 귀족들의 미적 감각을 내포한 의상이 되었으며 16세기에 스페인의 흑색이 유럽 전체에 유행되면서 흑색의상이 비로소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의복의 절제미를 알았던 스페인 국왕 찰스5세의 개인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때의 흑색의 상징은 ‘엄격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19세기까지 흑색의상은 부르조아를 중심으로 남성들에게 지배적으로 입혀졌으며 그들은 이 흑색에서 엄격한 위엄을 만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함은 1920년대 샤넬에 의해 여성복에 도입된다. 그 시대의 흑색은 분명 강한 ‘남성’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흑색을 샤넬이 과감히 사용한 것은



[그림 8] 티티안, 찰스5세 16세기, 「Veiazquez」

여성에게서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흑색의 엄격함은 1940년대의 크리스찬 디오르의 ‘여성적 향수’를 담은 고전적 스타일 [그림 9]과 1960년대의 이브생로랑의 검은 정장까지 슈트로 이어지며 오늘날 권위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간소함

밸러리 스틸(Valerie steel)의 「Paris Fashion」에 의하면 “19세기의 검정색의 승리는 ‘절대적 간소함’으로 나아가는 부르조아 남성복을 특징지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부르조아의 흑색의 ‘간소함’의 출발은 퓨리탄니즘(청교도주의)인 것이다. [그림 10] 부르조아의 흑색의 출발이 17세기 네덜란드의 흑색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네덜란드는 청교도의 믿음이 깊은 부르조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그들은 주로 간소한 흑색의상으로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산업제품의 흑색도 청교도주의의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음이 앞에서 밝혀졌다. 즉 이러한 흑색은 금욕주의적인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그림 9] 디오르의 블랙 올 크레이프 슈트, 1950, 「Dior」

있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물질만능시대로 치닫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비트족의 흑색 의상과 1980년대 레이가와쿠보의 일련의 흑색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4) 현대성(Modernity)

오늘날 흑색은 모던의 컬러로 불리운다. 회화에서 1940년대 몇몇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흑색이 도시를 상징하고 있었다. 디자인에서 흑색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 생산과 더불어 자연재가 아닌 인공재료를 사용하면서 출현하게 되었고 디자인에서 흑색은 현대성의 기준인 ‘기능성’ ‘일상성’ ‘단순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모던한 컬러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의상에서 흑색이 현대성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된 것은 보들레르의 댄디즘의 흑색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에세이 「The Painter of Modern Life」라는 글에서 패션이 현대성의 가장 충격적이고 유일한 신호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패션이 현대적인 것의 열쇠라고 하였다.⁴⁴⁾ 그는 “만약 현대인이 검정색 유니폼을 선호해 평

44) Valerie steele, 앞글, p.91.



[그림 10] 17세기의 네덜란드 영향의 간소한 흑색의상, 1642



[그림 11] 레이가와 쿠보의 흑색, 1983, 「New Fashion Japan」

장한 초기 시대의 복장을 포기했다면, 예술가들은 검정색 코트, 하얀색 타이, 그리고 회색빛 배경과 함께 색상을 창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그의 이러한 생각은 도시감각에 민감했던 마네(Manet)에 의한 「뮐러리의 콘서트」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보들레르의 흑색의 현대성은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로 이어진다. [그림 12] 1920년대까지 여성복은 여성들을 예술적 매개체로 여기는 남성디자이너에 의해 환상에 근거한 패션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속도와 효율성에 기초하며 여성의 독립적 자아를 인식한 샤넬에 의하여 탄생된 엄격한 블랙 드레스는 차처럼 기능적이고 그 디자인의 순수함은 레제의 기계적인 면을 동시대적인 스타일로 반향하고 있다.⁴⁶⁾ 흑색의 현대성은 20세기의 회화, 디자인 모든 분야에 나타나는 상징으로 특히 의상을 포함한 디자인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샤넬의 리틀블랙드레스, 1926, 「Chanel」

흑색의 ‘반향’의 상징은 1950년대 바이커와 록커들[그림 13]에 의해 검정 가죽 재킷으로 불량한 이미지를 기성세대에게 확실히 심어주었다. 검정 가죽 재킷의 근원은 Mick Farren(믹 파렌)의 저

5) 저 항

45) Valerie steele, 앞글

46) Jean Leymaire, 앞글, p.103.



[그림 13] 영화 「The Wild one」의 biker, 1954,
「Street Fashion」

서 「The Black Leather Jacket」에 의하면 제1차 세계 대전시 독일군의 비행사들의 유니폼에서 출발하였으며 이것이 제2차세계 대전시에는 나치들의 철갑 갑옷이나 사슬갑옷의 현대적인 대체물이었다고 한다.⁴⁷⁾ 검은색이 ‘위협적인 힘’의 상징으로서 사용된 또다른 예는 “1922년 유럽의 첫번째 파시스트(Fascist 이탈리아 국수주의자)의 지도자인 베니토 뭇솔리니(Benito Mussolini)가 로마를 진군했을 때 “The Leader”로 불리우는 22000명의 검정셔츠(Black-Shirted)의 지지자들과 함께 하였다.⁴⁸⁾”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 때의 흑색은 파시스트의 흑색이며 바로 ‘위협적인 힘’의 상징인 것이다.

펑크의 흑색은 ‘반항’의 정도를 지나쳐 희망이 없음과 그래서 자기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어하는 무정부주의적인 블랙이다. 이러한 청소년 하위 집단에서 나온 거치른 흑색의 상징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징이 되었으며, 이러한 ‘반항’은 젊은이들이 흑색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림 14]



[그림 14] Anne Demulmeester, 1996,
「Collezioni」

6) 성(Sexuality)

블랙이 ‘性’을 상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 예는 바로 1960년대부터 유행한 페티쉬 패션이다. [그림 15] 페티쉬 패션의 색인 번들거리는 흑색은 새로운 섹슈얼리티를 보여준다. 즉 페티쉬 패션의 끈적끈적하고 번들거리는 흑색은 터질듯한 성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며, 빛에 반사에 의해 강조된 신체의 볼륨감은 더욱 성적 흥분감을 자아내게 한다.

패션과 ‘성’의 관계는 20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로틱 예술 연구의 선구자인 뭉크는 “예술은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에로틱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왜냐하면 에로티시즘은 모든 인간 생활 근원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흑색의 ‘성’의 상징은 1960년대 이후 패션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패션은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시대 이후의 패션의 성의 표현은 이전까지의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에로티시즘의 표현

47) Mick Farren(1955), 「The Black Leather Jacket」, (New York : Abbeville Press, 1955), pp.20-26.

48) Jacqueline Herald, 「Decade of 1920」, (London : Batsford, 1991), p.8.



[그림 15] 블랙 PVC를 이용한 패티쉬 패션, 1972, 「Fashion '85」

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성의 표현인 페티쉬 패션에서의 흑색은 바로 극단적인 성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성이 아닌 제2의 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흑색이 자연에 반하는 인공의 색임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흑색만큼 性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색상은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흑색의 조형적 특징과 가장 많은 연관을 가진 상징성이기 때문이다. 형태에 있어서 밀착형과 노출형, 재질에 있어서 광택 소재, 비치는 소재, 신축성 소재 등이 흑색의 성의 표현에 모두 적합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본장에서 살펴본 흑색의 상징성이 어떠한 주요 인자에 의해 생성되었는가를 정리한 도표이다. <표 4>

흑색의상의 상징성은 앞에서 살펴본 전통적 상징성과 회화, 디자인에서의 흑색의 상징성과 모두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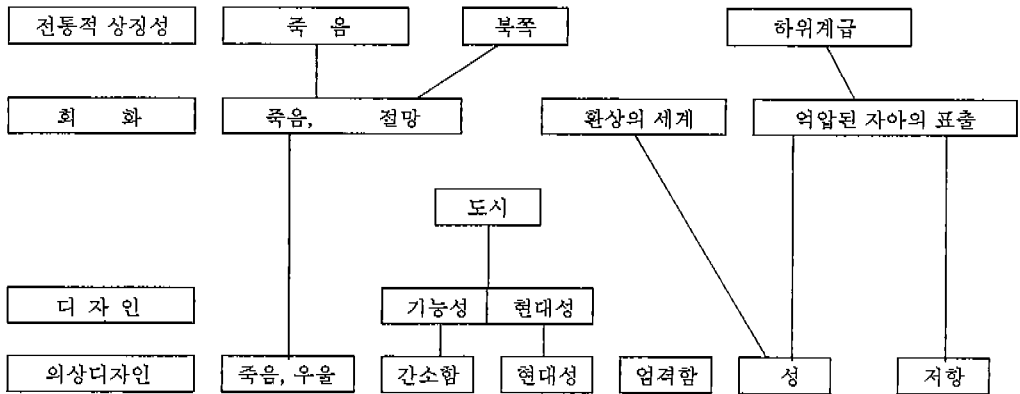
흑색의 상징성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서 죽음, 억압된 자아의 표출, 현대성으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회화와 의상 분야의 흑색의 상징성은 모두 연계성을 가지며 이는 두 분야 모두 미적 욕구에 의한 조형 형태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의상을 포함한 디자인 분야에서 흑색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현대성에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 5>

<표 4> 흑색의상의 상징성의 변화

시대	고대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19세기	1920	1950~
주요인자	종교, 전통적 상징성	스페인의 영향	네덜란드의 영향	보틀레르의 댄디즘	샤넬의 리틀 블랙드레스	청소년 하위문화와 성개방과 성에 대한 집착
죽음						
억압함						
간소함						
현대성				<남 성>		
					<여 성>	
저항						
성						

〈표 5〉 흑색 상징성의 연계성



IV. 결 론

흑색은 20세기의 색이며 현대 디자인에서, 특히 현대 패션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색이다. 본 연구는, 흑색의상에 관한 연구를 보편적 특징을 지닌 상징성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방법적으로 회화와 의상 이외의 디자인 분야의 흑색을 분석하고, 이를 흑색의상의 조형성 및 상징성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병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흑색의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 흑색은 정적이며, 수축의 색이며 근접색을 밝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회화에서 흑색은 전체 조화의 주조색으로 또는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초기 추상미술에서는 원색과의 대비로, 추상표현주의에서는 백색과의 대비로 강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제품디자인에서는 직선주의적이고 무장식의 기능주의적 형태와 매끈하고 밋밋한 표면 등이 조형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흑색의상의 조형적 특징은 회화에서의 평면성의 강조와 정적이며 구심적 운동의 특성이 의상에서는 단순형과 밀착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접색을 밝게 하여주는 특성은 노출형 의상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재질면에서 흑색은 빛의 효과에 의해 변화가 크므로 광택있는 소재에 적합하

며 피부와 흑색과의 강한 대비로 인한 비치는 소재와, 밀착형에 적합한 신축성 소재, 엄격한 분위기에 맞는 매트한 소재 등으로 요약되었다.

흑색은 전통적으로 흉과 공기, 복죽, 토성, 낮은 계급, 죽음 등을 상징하였다. 회화에서의 흑색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어두움의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19세기 이후에 죽음, 작가의 어두운 정신세계, 환상 등을 상징하였으며, 추상미술에서는 색의 無, 죽음 등을 특히 1940년대 이후 추상표현주의에서는 도시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디자인에서 흑색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사회의 기계제품에서 주로 등장하게 된다. 흑색은 초기사업사회의 청교도적 도덕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균일성, 바우하우스에 의한 색의 제한 등을 배경으로 20세기, 즉 현대의 색으로 인식되었다. 그 상징성은 기능성과 현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상에서의 흑색은 르네상스 이전에 주술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제한에 의해 상복, 종교복, 서민복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의상에서 흑색의 상징은 죽음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16세기에 흑색의상이 귀족들에게 널리 유행되면서 흑색은 엄격함의 상징을 내포하게 된다. 17세기의 흑색의상은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부르조아층의 영향으로 보다 단순한 형태의 간소함을 상징하게 된다. 19

세기의 부르조아를 중심으로 한 시민복과 댄디들의 복장에서 흑색은 산업사회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남성복의 색상이 되었고 여성복에서는 1920년대의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현대성의 상징을 갖게 된다. 1950년대 이후의 흑색은 청소년 하위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색상으로 사용됨으로써 저항과 성의 상징성을 갖는 계기가 된다. 이렇듯 의상에서 흑색의 상징성은 죽음, 엄격함, 간소함, 현대성, 저항, 성 등 6가지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들의 상징은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서로 믹스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되고 있다.

이상에서 흑색의 상징은 크게 죽음, 억압된 자아의 표출, 현대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앞의 두가지의 정신적인 상징은 회화와 의상에서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현대성은 디자인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상징으로 분석되었다.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의 연구에서 흑색이 의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현대 패션에서 흑색은 앞으로도 많은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흑색은 의상과 회화 및 다른 디자인 분야의 연계성에서 조형성뿐 아니라 상징성에서도 많은 관련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색을 통한 의상 디자인 개발에 있어 다른 예술분야와의 교류 및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베일리, 스티븐, 손호철(역),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역사」, 열화당, 1985.
- 2) 브루자틴, 만리오, 이수균 역, 「색 :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미진사, 1996.
- 3) 비렌, 파버,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 4) 비렌, 파버, 김화중(역),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5.
- 5) 에너슨, H. H, 이영철(역),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 6) 이텐, 요하네스, 김수역(역), 「색채의 예술」, 서울 : 지구문화사, 1976.
- 7) 이견호, 「디자인 통론」, 유평문화사, 1993.
- 8) 정승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994.
- 9) 칸딘스키 바실리, 권영필(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1979.
- 10) 콜린스, 마이클, 한영호, 김홍기(역), 「현대 디자인의 이해」, 지문당, 1992.
- 11) 파일, 존, 「현대 디자인 사조」, 황미출판사, 1985.
- 12) 페레비, 앤, 서병기(역), 「디자인 소사」, 1983.
- 13) Baker, Patricia, 「Fashion of decade The 1940's」, London : Batsford, 1993.
- 14) _____, 「Fashion of decade The 1950's」, London : Batsford, 1995.
- 15) Boucher, François,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66.
- 16) Brown, Jonathan, 「Velazquez」, Yale University Press, 1986.
- 17) Carnegy, Vicky, 「Fashion of decade The 1980's」, London : Batsford, 1990.
- 18) Connlicie, Yvonne, 「Fashion of decade The 1960's」, London : Batsford, 1994.
- 19) Contini, Mila, 「5000 years of Fashion」, Y : Chartwell Book, Inc. 1977.
- 20) De'Marinis Fabrizio, 「Velvet」, Milani idea books, 1994.
- 21) De Noblet, Jocelyn, 「Industrial Design」, Flammarion/APCI, 1993.
- 22) Ewing, Elizabeth,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B.T. Batsford Ltd, 1992.
- 23) Farren, Mick, 「The Black Leather Jacket」, N.Y. : Abbeville press, 1955.
- 24) Gage, John, 「Colour and Culture」,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3.
- 25) Herald, Jacqueline, 「Fashion of decade The 1920's」, London : Batsford, 1991.
- 26) _____, 「Fashion of decade

- The 1970's, London : Batsford, 1994.
- 27) Hollander, Anne, & Wollen Peter, 「In Black and White」, Ohio University, 1992.
- 28) Jones, Mablen, 「Getting it on」, N.Y. : Abbeville Press, 1987.
- 29) Koren, Leonard, 「New Fashion Japan」, Tokyo : Kondansha Inc. 1984.
- 30) Laber, James, 「Costume and Fashion」,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2.
- 31) Lawenhaut, Tony, 「Crosscurrent(art, fashion, design)」, N.Y. : Rizzoli, 1989.
- 32) Lebenthal, joel, 「Fashions of the Sixties . Radical Rags」, N.Y. : Cross River Press, 1990.
- 33) Peacocke, John,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3.
- 34) Polhemus, Ted(ed.), 「Street Style」,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2.
- 35) Steele, Valerie, 「Women of Fashion」, N.Y. : Rizzoli, 1991.
- 36) White, Emily(ed.), 「Fashion 85」, N.Y. : St. Martin's Press, 1985.
- 37) White, Emily(ed.), 「Fashion 86」, N.Y. : St. Martin's Press, 1986.
- 38) 변임단, “미술에 나타난 색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석사학위논문, 1973.
- 39)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40) 양승화, “흑백의상에 관한 연구-한국 여성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41) 원형준, “고야의 black painting의 도상학적 연구”,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석사학위 논문, 1995.
- 42) 이미숙, “보들레르 댄디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43) 한성희, “오딜롱 르동의 판화에서의 Noir 연

- 구”,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석사학위논문, 1993.
- 44) 허인주, “색채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45) Vogue, 1960~1970
- 46) Vogue, 1980~1996

ABSTRACT

A Study on Formality and Symbolism in Black Dress

Since the costume directly express human mental and emotional status, colors of costume can be valuable data to grasp the spirit of the times. Black is noticeably used in modern fashion and the study for black costume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modern fashion. Therefore the study mainly approaches the black costume, finding its background of appearance and symbolism, reviews the symbolism and formality of black expressed in the field of painting and design beyond the fashion, and compares to fashion.

The study result of the thesis is as follows : First, black as a color is a one to light other neighboring colors, while it is a static, contractible and outstandingly attractive color.

Second, black color traditionally symbolizes death, earth, air, North and inferior level and in the painting, it symbolized death, despair, fantastic world and the expression of pent-up self, while cities have been symbolized in the black printing in modern times. In the design, black has appeared with the industrial society, which symbolizes functionality and modernity.

Third, black in the fashion design was symbolized death, sternness simplicity, mod-

ernity, sex, resistance and so on. Death became conspicuous by a religious factor since the old times, sternness was influenced by Spanish fashion in the 16th century, simplicity by Dutch fashion in the 17th century and modernity by Baudelaire dandyism and Chanel little black dress, while sex and resistance were urged to the modern times by teenage inferior culture and stickiness to sex.

Fourth, the formative features of black costume prefer simplicity, tightness and bareness in form, and in material, usually used glancing materials changed by the effect of light, lace,

see-through fabric and matte one with depth.

As a result, the black color is summarized to symbol death, expression of self and modernity.

It is not a color of emotion but of mentality and artificial one against nature. Black color in fashion gets a strong power to express self in the symbolic aspect and draws a higher attention on human body than the fashion itself. By these features, black costume will be continuously preferred in spite of changes of the fashion.